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대권 재도전 장애물 '제거'

美 콜로라도주의 자격 박탈 판결 만장일치 뒤집어 연방대법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은 의회의 일" 명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데,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출마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됐던 내란죄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피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오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복

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6명의 보수 우위로 재판된 상태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것을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 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어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승리한 뒤 연설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중 무난히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바둑 대법관들

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법관들은 세부 결정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 5명의 보수

대법관들은 부대 의견에서 의회가 문제의 헌법 14조 3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자격자에 대한 추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개별 주가 내란 연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의 경선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며 "다수 법관의 제안은 이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며, 이는 미래 대통령 후보의 자격 박탈을 제한하는 데까지 이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 메시지를 게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마라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린 대법원에 감사하다"면서 책임 활동은 문제삼아 퇴임 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자신이 퇴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의 콜로라도 문제에 대한 이번 결정은 매우 빠르게 이뤄졌다"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에 대한 특검의 기소와 관련한 면책 특권 문제 심리의 느린 속도와 대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

상하원 합동회의,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개헌 승인

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5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이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제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역사상 처음 여성으로서 양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아엘 브론 피베 하원 의장 역시 엑스에 "프랑스에서 낙태는 영원히 권리가 될 것"이라며 "이 강력한 행위를 통해 프랑스는 당파적 분열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 헌법을 넘어 "유럽 헌장에 이 내용이 명시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프랑스는 지난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로 추진했다. 이에 지난 2022년 11월 하원에서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으나 3개월 뒤 상원에서 '권리'가 '자유'로 수정된 안이 통과돼 헌법 개정에 실패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이 동일문구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마크롱 정부는 결국 직접 개헌을 주도하기로 하고 '낙태할 자유 보장'이라는 절충 문구로 개헌안을 발의해 상하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이날 최종 개헌 투표를 앞두고 파리 시내와 투표 현장 인근에서는 개헌 찬성·반대 지지 집회가 각각 열렸다. /연합뉴스

금값 2개월여만에 다시 사상 최고

온스당 2천100달러 첫 돌파

미국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라 기대가 커지면서 4일(현지시간)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

분 금 선물 증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 오른 온스당 2천126.30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천100달러를 넘어섰다. 금값이 전고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27일(온스당 2천93.10달러) 이후 2개월여 만이다. 금값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

나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금 선물시장 참가자들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베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장은 6일과 7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미 연방 하원 및 상원 증언에서 그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과도르, 갱단 뒤보주던 판사·정치인 등 13명 체포

대선후보 살해와 방송국 난입 등 에과도르 치안을 최악으로 몰고 간 갱단원들의 뒤에는 법관과 정치인 등이 있었다는 검찰 발표가 나왔다. 디아나 살라자르 검찰총장은 4일(현지시간) 에과도르 검찰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동영상 메시지에서 "우리는 최근 몇 달간의 수사를 통해 국가기관 내에 자리하고 있던 뿌리 깊은 부패의 증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과 함께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번 수사를 이끈

바 '숙청사건'이라고 명명했다. 에과도르 검찰에 따르면 이날 수사 당국은 전 과야스 지방법원장을 비롯해 판사와 정치인 등 전·현직 공직자 13명을 전격 체포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조직범죄와 결탁이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일부 판사와 정치인이 범죄 혐의 있는 갱단원들의 뒤를 보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일부 피의자 자택에서 총기,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보석

류, 달러 현금다발 등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살라자르 검찰총장은 "검찰은 우리 사법 시스템을 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때 중남미에서 '안정적 치안의 보루'로 여겨졌던 에과도르에서는 자국 항구를 통해 미국 및 유럽으로 마약을 운송하려는 카르텔 활동으로 수년 전부터 폭력 범죄가 급증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대선후보를 비롯한 정치인이 여럿 피살됐고, 피향들의 방송국 난입 사태까지 발생했다. /연합뉴스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파라드시티

헬스

14일동안 CALORIE BAR lounge for Diet - detox cav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4 DAYS BEAUTY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디움 상가 2층

HDKorea

(주)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해보세요"

임동점

금호빌딩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